새사연 보고서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써 '사회혁신'

'사회혁신' 이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

2013.11.11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
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
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 사회혁신
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
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
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Copyrights(c) 2013 SAESAYON All rights reserved. | www.saesayon.org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29길 민한빌딩 4 | TEL : 02-322-4692 | FAX : 02-322-4693

요 약 문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경영혁신 같은 개념들은 익숙하지만 '사회혁신' 이라는 개념은 아직 매우 생소하다. 그런데 '사회혁신' 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정말 우리사회 미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시장과 국가에 의지한 과거의 해법을 뛰어넘는 방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더욱 현장에 밀착해야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사회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제인식능력과 해결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똑똑해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의 각 현장에서 각각 당사자들로서 복잡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법론과 전략 그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혁신은 절실한 시민적 필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생활과 삶을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인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은 기존에 익숙한 시장이나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하고 획일적 해법을 피하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각자의 이기적 행동을 방치하거나 국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대신,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이 쌓이게 하고 자치의 제도적 기반들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혁신을 기초적으로 정의하면, ①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② 새로운(신뢰와 협동)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③ '기존 방식과 다른 문제해결' 을 모색하는 ④ '당사자들의 참여와 행동' 이다.

미래의 진보적 사회변화를 총칭하는 중심개념으로서 사회혁신을 제안하려면, 각각의 미시적 사회혁신을 총합하고 수렴할 뿐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혁신' 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거시개혁 담론 흐름과는 아직 다소 동떨어져 있다. 물론 슘페터가 강조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것은 기존 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담론들이 쌓아놓은 방대한 문제의식과 노력들을 포용해야 한다.

2012년 10월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지명된 후보들의 공약경쟁이 본격화 되던 때였다. 당시 모든 후보들이 혁신이라는 개념이 탑재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공정경제, 안철수의 혁신경제는 비록 이름이 다를지언정 모두 그 내용 속에 혁신, 특히 '기술혁신'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서 '사회혁신'을 얘기했다. 물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발상의 전환이 기업에 혁신을 가져오듯, 사회혁신으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회혁신이야말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사회혁신이 단순히 로컬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적 비전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 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함으로써 굵직한 사회혁신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한겨레, 2012.10.14)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경영혁신 같은 개념들은 익숙하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아직 매우 생소하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정말 우리사회 미래 변화의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장과 국가에만 의존한 과거의 해법을 뛰어넘는 방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사회에서 진보적 변화를 열망하고 있고, 지역과 동네 곳곳에 흩어져서 묵묵히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심리적, 의지적 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를 전진적으로 선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쉬운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복잡한 유기체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틀과 새로운 행동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포착하고 모색하는 시각과 방법론 '그 자체의 변화'가 시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감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문제의 화두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장 강력한 화두가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시론적이지만 '과감하게' 질문의 답을 구해 보도록 하자.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

흔히 말하듯이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다수의 민중과 시민들은, 때로는 '사회변혁'이라는 전략 틀 안에서 그 변화를

이해하고 실천해왔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사회 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서 추진하고 참여해왔다. 그렇다면 아직은 낯설지만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념인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역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민과 지식인들의 오랜 사회 정치적 기획과 운동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혁신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 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법론과 전략 그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요구되는지, 그러한 요구가 사회혁신이라는 개념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변화의 차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한다면 ①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②국민들의 경험적, 지적 수준의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 사회의 복잡성: 한국사회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해왔다. 식민지 후진국에서 OECD국가로 고성장을 지속한 거의 유일한 나라, 한국전쟁 이후 경제규모가 약 50배 가깝게 커졌다는 압도적인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의 구성과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질적 변화도 엄청난 것이다. **결국 '일회적인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제 사회운동도 우리가 시도하는 기획이 세계 최첨단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사회변화 방법론과 전략 측면에서 '모방'은 없다.

② 엘리트주의 시대 종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맹을 탈출했음은 물론 대학 진학률 70%이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최고의 인터넷 활용을 자랑하는 똑똑한 국민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21세기 들어서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엘리트주의적 발상과 방법에 의존했던 20세기 형 변혁이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엘리트를 추종하기만 하는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사회변화 전략의 현실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 국민이 지식을 갖는 시대'의 화두를 던졌던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지막 일기 2009년 3월 18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맑스의 이론같이 경제형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

1. 봉건시대는 농민은 무식하고 소수의 왕과 귀족 그리고 관료만이 지식을 가지고 국가운영을 담당했다.
2. 자본주의 시대는 지식과 돈을 겸해서 가진 부르주아지가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은 피지배층이었다.
3. 산업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노동자와 합류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4. 21세기 들어서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 김대중, 『김대중 마지막 일기』

한 마디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변화 방법이자 전략이었던 ①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한 문제 해결 방법의 한계는 점점 더 커지고, ② 기존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방식의 한계도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① 시장과 국가에 의존한 해법의 한계: 사회 환경과 사회 주체의 변화로 인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해법들에서 모두 한계점이 노정되기 시작한다. 시장에만 의존한 해법의 문제점과 취약성은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침체로 인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바다. 완전한 국가 계획의 문제점 역시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 붕괴 등으로 이미 확인했으며, 그 밖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진해 온 크고 작은 국가적 개혁 정책들에서 긍정성과 제약성을 보아왔다. 이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참여하는 공간, 즉 크고 작은 공동체들과 지역사회 등의 역할이 동시에 필요해지고 있다.

시장과 국가를 넘어

케인스는 순수 시장이나 계획경제는 모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벽한 데이터가 주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려면 시장 참여자들 각자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계획이 국민의 필요와 일치하려 해도 중앙계획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케인스가 볼 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가나 시장과는 다른 제도들에 의존하여 장기간 성공적으로 공유자원 체계를 운영해온 많은 공동체들”이 있

> 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를 막을 방법으로서 시장을 통한 사유화나 정부의 개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딜레마에 빠트린 상황적 제약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
>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② 문제 해결형 시민운동으로 전환 필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이른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별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변혁과 개혁의 경계선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동시에 과거식 시민운동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제는 '문제 제기형 시민사회운동'을 넘어서 대안적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거시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제기 형 시민운동에서 문제 해결형 시민운동'으로 발상과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사회 변혁가, 시민 운동가, 착한 기업가들은 이제까지의 분리된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하나로 연계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무엇일까? 복잡해진다는 것은 더욱 현장에 밀착해야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사회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제인식능력과 해결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똑똑해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의 각 현장에 각각 당사자들로서 복잡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법론과 전략 그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탓으로 우리 사회 시민운동과 진보가 현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이를 돌파할 개념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사회혁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우선 잘 알려진 기존 정의 두 가지를 살펴보자.

>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 (Geoff Mulgon, 2007)

>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사회적 수요, 사회적 성격, 사회 문제 등의 단어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사실 개념들이 모호하고 상당히 불명확하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선도하고 있다고 알려진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 미국의 아쇼카 재단이나 스콜 재단등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 을 지원하거나 관련 분야의 일을 세계적 범위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는 단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영 재단의 제프 멀건(Geoff Mulgan) 말처럼, 그들이 정의하는 개념 속에는 사회운동의 경험과 비즈니스 혁신의 경험을 "적절히 섞어 만들어낸" 흔적이 강하다.[1] 또한 "사회혁신이란 유토피아적 청사진과 과격한 혁명의 오류에 대한 점진적이며 경험적인 대안" 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창업에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 정신' 또는 '사회적 기여를 생각하는 기업가적 발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혁신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활용했던 기업세계의 경영혁신, 업무혁신, 기술 혁신이라는 용법과 경험에서 참조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과 차별화되는 (어쩌면 가치와 방법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혁신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기업이나 기술에서 '사회' 로 혁신의 대상만 바꾸는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2]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을 혁신하려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기존 정의들은 '사회적 수요', '사회적 기여' 라는 대단히 추상화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생활, 도시 공동체, 작업장의 진화, 정체성과 갈등, 범죄와 폭력, 착취와 협력 같은 다양한 현상" 등 이른바 사회적 문제(수요)들도 각 수준과 차원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결함이다.

우선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대상과 목표의 차이에 따라 혁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신자유주의 금융혁신과, 다른 한편에서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금융에서의 혁신들이다. 둘 다 혁신이라고 불리고 나름대로 범주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혁신이었던 것이다. 하나는 월가라는 특정 이익 집단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나머지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나쁜 혁신' 이었으며, 후자는 특정 집단에게 큰 이익을 준 것은 없지만, 다수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이었던 것이다.

---

1) 제프 멀건, 2007,『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2) 전통적인 자본주의 기업혁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장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던 슘페터의 이론을 뒤에 살펴볼 것이다.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

지난 2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혁신 사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금융혁신'과 'IT혁신'을 꼽지 않았을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문자 그대로 '대량 살상무기'로 확인된 파생금융상품은 사실 이제까지 금융공학이 이뤄낸 혁신의 꽃이자 금융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발명품으로 칭송받았다. 1973년 마이런 숄즈(Myron Scholes)와 피셔 블랙(Fischer Black)이 완전금융시장에 대한 이론적 가정아래 옵션가격 모형(이른바 블랙 숄즈 모형)을 개발한 이래 파생상품은 최고 난이도의 공학적 뒷받침을 받는 최고의 혁신 상품으로 대접 받았던 것이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금융혁신이 주도하고 정보통신 혁신이 밀어주면서 굴러온 20여 년 동안의 혁신의 수레바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침체를 일으킨 원흉이 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이제 이들을 인류를 힘들게 했던 혁신, 나쁜 혁신으로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혁신이 좋은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1970년대 이래 금융부문에서 앞에 예시들 든 그런 혁신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블랙 숄즈 옵션 가격모형이 개발되던 1973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작은 마을의 여성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 구상을 시작하게 된다. 유누스가 착수한 혁신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을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인 은행시스템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와 신용보증 없이 150달러 미만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 해주는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원리금 상환이 안 되어 망했을까? 정 반대다. 원리금 상환률은 '98%'였다고 한다. "현재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받은 870만 명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운영 중인 그라민 은행 지점은 2천개 이상이며 1만 8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라민 은행의 성공적인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은 끝없는 첨단을 추구한다면서 불평등과 위험을 확대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혁신이 아닐까? 이처럼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은 구분할 수 있다.

* 이승은, 『되살린 미래』

따라서 다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가 진보되는 사회혁신이 되려면 과거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의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필요한 전제다. 동시에 그것은 미래 지향성이 확고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시대의 화두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왜 이런 화두들이 제기되었고,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사회혁신이 그 맥락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강력한 보편복지 요구, 경제 민주화 요구를 낳았던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에서 사회혁신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막연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실한 사회적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당위는 '필요기반 정의'로부터 유도해 낼 수 있다.

○ **'필요기반 정의' : 노동, 건강, 교육, 주거, 환경 등 모든 국민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우리 헌법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실현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다.** 사회혁신의 동기, 출발은 바로 절실한 사회적 필요다.

'필요기반 정의'에 대해
두 가지 보상의 기준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더 많은 연봉을 책정하여주는 것이 이런 방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깨지고 능력에 따른 연봉제가 확산된 배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성취기반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필요기반 정의'에 입각해서 분배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치료가 급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바로 필요기반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 에버트 재단, 『사회 민주주의 총서1: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특히 우리시대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욕구(wants), 또는 탐욕(greeds)이 교육에서의 무한경쟁과 부동산 가격경쟁 등으로 비화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필요(needs), 시민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이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이다.**

끝없는 욕구와 상대적 필요
우리는 대체로 "세상의 모든 재화가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만, '탐욕'을 채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케인스 전기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스키델스키 부자는 '끝없는 욕구'와 '상대적 필요'를 구분하고 있다. **"좋고 안락한 삶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인 '필요(needs)'는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욕구(wants)'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이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탐욕'을 넘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혁신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
> * 로버트 스키델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 사회혁신

그러면 절실한 시민적 필요, 사회적 필요에 대해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가운데 무엇을 사회혁신이라고 하는가? 더 나아가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의 엔진이라고 슘페터가 예찬했던 것과 비견되는 수준에서, 과연 사회혁신이 21세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변화를 추동할 엔진으로서 정의될 수 있을까?

① 우선 앞서 요약한 대로 사회혁신은 절실한 시민적 필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생활과 삶을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인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네의제, 지역의제, 국가적 의제를 동시적으로 통찰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 자체가 바로 기존의 관행과 익숙한 해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앞서 금융혁신의 사례처럼, 사회 문제에 대한 다종다양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모두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저 기능적으로 '참신'하다고 혁신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앞서 시대적 변화를 짚었던 것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여건과 갈수록 똑똑해지는 시민들의 능력을 사회혁신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즉, 기존에 익숙한 시장이나 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하고 획일적 해법을 피하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각자의 이기적 행동을 방치하거나 국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대신,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

이 쌓여서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이 쌓이게 하고 자치의 제도적 기반들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즉, 사회혁신 활동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사후적으로만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과는 이런 점에서 구분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혁신은 일종의 '가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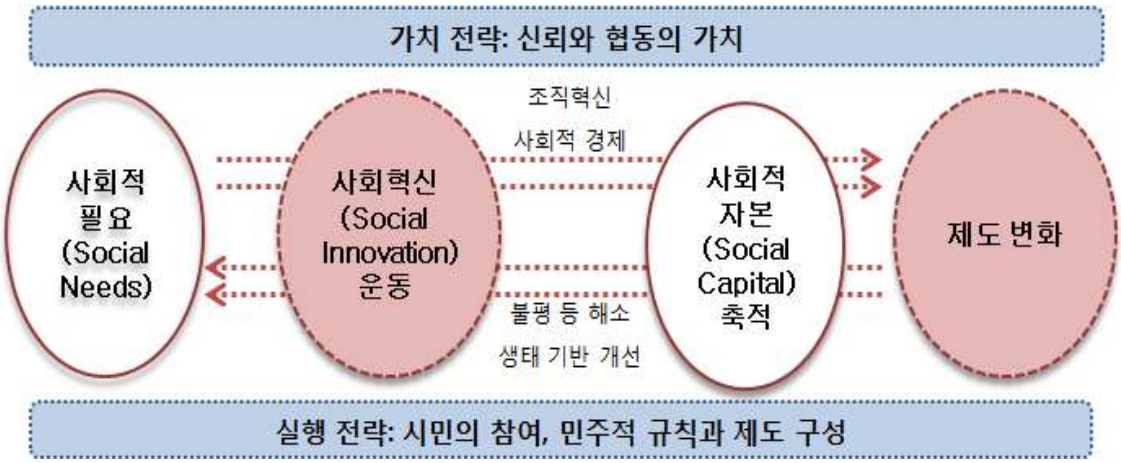
예를 들어 보자. 똑같이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에 공감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다르면 접근법이 달라지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혁신적 발상이 나온다. 동네의 범죄와 안전은 절실한 주민의 필요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우범지대에 경찰을 더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염리동 소금길'처럼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보지 않고 '주거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하면 지역 공간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1960년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의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랫동안 관성으로 된 "효율과 평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 틀을 깨지 않으면 지금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다른 접근법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③ 사회혁신은 '가치전략'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과 달리 사회혁신은 국가적 구조가 통째로 혁신되기 이전에라도, 시민들이 살아가는 각 생활현장에서 (비록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실제로 대안적 해법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해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핵심은 '실행 주체'의 문제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지점의 일상생활 국면에서 사회적 필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공동체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사회혁신으로 파악한다. **사회혁신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당사자 운동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당사자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문제 해결 지향적 활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우선 동기와 목적 측면에서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나 집단의 이기주의, 또는 지역의 이기주의적 행동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뢰와 협동과 같은 가치가 중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실행 집단, 즉 '계급', '시민'과 같은 광의의 집단 개념만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져가는 현대사회의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참여의 극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점 더 사회변화의 더 많은 동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쉽고, 일상적이고, 다양한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물론 거시적 차원의 혁신 주체를 고려할 때에는 당연히 계급과 시민이라는 집단, 공동체들도 중요해진다.)

○ **사회혁신 '운동' 의 재정의: ①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② 새로운(신뢰와 협동)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③ '기존 방식과 다른 문제해결' 을 모색하는 ④ '당사자들의 참여와 행동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적 필요와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거칠게나마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림 1 참조)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혁신은 단순히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 보건,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은 지방차치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틀로서 확장할 여지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 사회적 필요,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의 연관 관계]



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 3)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회혁신은 미시적 차원의 변화를 포착한 개념이다. 시대의 총괄 담론으로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혁신은 작은 지역 공동체나 특정 분야 사안(현장)에서의 미시적 변화를 실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 각 분야에서 각자 알아서 천 가지 사람들이 천 가지 방법으로 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실천성을 담보하게 해주는 사회혁신의 특징이자 매우 중요한 강점이기도 하다.

3) 여기서는 미시적 -거시적이라는 용어를 다소 느슨하게 지역적(local) - 국가적(national)이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미시적 차원과 함께 거시적 차원이 있다. 과거의 사회운동이 주로 전국 차원의 거시담론에 치우쳤다는 점은 마땅히 성찰해야 한다. 주체 역량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거시 담론에 치우치다 보니 대안을 내지 못하고 비판에 그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구체적 현장에서 사회변화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시적 차원에서 수렴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개별적인 동네 이슈의 단순 합이 지역이슈가 아니고, 지역 이슈의 단순 합이 전국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의 구성의 오류
아담 스미스 이래 주류 경제학은 대체로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과 국가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자의 최선의 행동이 전체와 자신에게 최선이 아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사례인 '절약의 역설' 이 그렇다. 죄수의 딜레마로 상징되는 수많은 사회적 딜레마 역시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에게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변화에서도 단순히 작은 규모의 변화와 큰 규모의 변화가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시적 접근과는 다른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래의 진보적 사회변화를 총칭하는 중심개념으로서 사회혁신을 제안하려면, 각각의 미시적 사회혁신을 총합하고 수렴할 뿐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을 말해야 한다. 지금 추가로 연구해야 할 것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혁신 개념(또는 아이디어) 인데, 아직은 미시적 차원의 경험과 개념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미시적 사회혁신과 거시적 사회혁신 사이를 가로막는 만리장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국 곳곳의 생활현장과 삶의 주변에서 시도될 수많은 '미시적 사회혁신' 을 어떻게 거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① 마음을 모아낼 하나의 끈 사회혁신: 우선 필요하고 가능한 것은 혁신활동이 세상 곳곳에 산재해서 일어나더라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동료' 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모두를 '사회 혁신가' 로 느끼게 하는 '심리적 공감대' 로서의 사회혁신 개념을 공유해야 한다.

참여 예산활동(정치), 사회적 기업 활동(경제), 혁신학교 활동(교육), 서민금융활동(금융)은 모두 각기 다른 영역의 다른 혁신 활동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회혁신'이라는 같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심리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사회혁신은 생활 현장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해야 하고 그것이 생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행동하는 각자가 '하나의 힘으로' 느껴야 하고 그럴 때 국가적 개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보이는 다양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통일성'을 만들어나가도록 사회혁신을 개념화하고 공유해야 한다.**

② 존재함으로서 거시영역에 영향을 준다. 미시적 사회혁신은 지금까지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거시적 혁신에 영향을 주어왔다. 첫째는 존재 그 자체로 거시사회구조에 긍정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둘째 거시적 혁신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상당한 경우 사회혁신 그 자체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양적으로 '마이너'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혁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메인스트림에 다양한 긍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수많은 지역공동체 은행, 협동조합은행,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조차 주류 금융의 약탈적 관행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은 주식회사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에 속하지만, 기존 주식회사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 무형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③ 거시적 혁신으로 비약한다. 미시적 사회혁신은 일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거시적 혁신의 실마리와 지렛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 엄청난 사교육비, 서열화 된 대학 등 우리사회의 최대 난제이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거시적인 교육구조 전체를 해결해주는 중심 열쇠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핵심문제에 대해서, (대학)입시의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초등학교)의 한 학교단위(미시)에서부터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시적 전략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교육감 직선제와 연결되면서 실제로도 거시적 혁신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시작한지 단 3년 여 만에 전국의 6천 여 개 학교 가운데에서 7%이상인 450여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지금의 협동조합 확산속도보다 훨씬 빠른 발전이다. 미시적 사회혁신은 '경기교육청의 참여'와 같은 어떤 주체나 제도, 기회가 접목되면 거시적 혁신으로 전환 가능함을 보여준다.

※ 혁신학교가 교육청을 매개로 전국화 한 사례를 볼 때, 엘리너 오스토롬이 강조한 '다(多)중심적(polycentric), 중층적 해법'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단일한 중앙집권적 권위체가 아니라 다 중심적 단위체계가 출현하여 아주 정교한 관리체계를 이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소규모 커뮤니티 – 지역 공동체 – 지방 자치체 –중앙정부의 적절한 분업 아래, 지역 공동체의 대안적 활동에 대해서 외부자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

새로운 담론으로서 뿐 아니라, 큰 틀의 담론이 되려면 '포용력' 과 '수용성' 이 압도적이어야 한다. 사회혁신 개념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나 우리사회에서도 이미 다양한 거시 개혁담론이나 거시 개혁전략이 백가쟁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혁신' 은 사실 그런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물론 슘페터가 강조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것은 기존 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담론들이 쌓아온 방대한 문제의식과 노력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된다.

더욱이 거시적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혁신의 목적이 좀 더 확실해져야 하고, 혁신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장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진보의 일반적인 목표를 사회혁신이 명백히 공유해야 한다. 이러할 때 적어도 세 가지 거시적 개혁전략을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오래된 최신의 과제– 형평성(불평등 완화)이고 둘째는, 현재로 다가온 미래과제–지속 가능성이며, 셋째는, 신자유주의 해악적 유산– 금융(부채)족쇄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케인스주의적 경기회복과 성장전략에 더하여 사회적 경제와 생태경제라는 서로 다른 정책 프레임을 융합시키려는 최근의 고민들을 참고해볼 필요도 있다.

6. '기업가적 혁신' 을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사회혁신, 특히 거시적 사회혁신의 개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 불연속적 발전,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의 개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혁신 개념을 짚어 보도록 하자. 그는 자본주의의 낙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적 기업가들의 혁신을 찬양한 것이지만, 거시적 차원의 사회혁신 개념을 잡는 데에도 상당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이 없다면 기업가도 없다. 기업가적 발전이 없다면 자본주의적 이윤도 경제의 추진력도 잃게 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던 슘페터는, 이미 20세기 초에 (미시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기업의 혁신활동을 강조했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기변동과 발전에 주는 영향 대해 주목했다. 물론 슘페터는 어떻게 분류해도 전형적인 보수 경제학자다. 그런데 그는 다른 보수 경제학자들과 달리, 자본주의를 안정된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자본주의 안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던 점에서 차별화된다.

혁신적인 기업가가 창조적 파괴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불황과 호황의 경기순환을 넘나들면서 경제가 번영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칼 맑스 역시 자본주의 내적 동력에 의해 경제 발전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쉼 없이 혁신하고 축적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본의 성격에서 그 동력을 찾았고, 그 결과는 자본주의 번영이 아니라 불안과 위기라고 본 점이 다르다.)
또한 슘페터는 일반적 보수 경제학자들과 달리 혁신이 소비자들의 욕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에서의 혁신은 우선 새로운 욕망이 소비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그 압력에 의해 생산기구의 방향이 바뀌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 쪽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욕망을 일깨워 준다는 것, 따라서 주도권은 생산 쪽에 있다” 고 강조한 점에서 차별적 특징이 있다.

하나 덧붙이면 슘페터에게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체가 엄청난 혁신체였다. 그리고 슘페터도 지적하듯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학자는 칼 맑스였다.

"부르주아지는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들의 지배기간에 지나간 모든 세대가 창조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했다. 자연력의 정복, 기계, 공업과 농업에 화학의 응용, 기선 항해, 철도, 전신, 경작을 위한 전 대륙의 개간, 하천의 운하화, 마치 땅 밑에서 솟아난 듯한 모든 인구 – 이전의 어느 세기가 이와 같은 생산력이 사회적 노동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음을 예감이라도 했겠는가?"(칼 맑스, 1848)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최고, 최대 조직인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슘페터의 논리를 따라 가보자.

① 혁신의 방법 – 창조적 파괴

슘페터가 강조한 혁신의 방법은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다. “조직상의 발전은 부단히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 – 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면 – 의 동일한 과정을 예시한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실이다. 자

본주의를 형성하는 것은 그것이며, 모든 자본주의적 콘체른은 이 안에서 살아있다." (슘페터, 1942)[4]

구체적으로 창조적 파괴, 돌연변이, 혁신은 기상천외한 발명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즉 생산 요소와 자원들의 기존 결합방식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기존 결합방식을 그냥 수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결합방식을 부정하고 파괴하여 새로운 결합방식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이 슘페터의 혁신 방법론이다.

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생산요소들의 기존 결합구조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결합이 비연속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이 나타나는 한에서만 발전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성립하는 것이다." (슘페터 1911)[5] 이 시점에서 기업가는 다양한 발상과 발명을 참조하여 기업 안에서 여러 생산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혁신가라는 것이다.

② 혁신의 다섯 가지 유형

슘페터는 '새로운 결합의 수행' 을 통한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식화하고 있다.(슘페터 1911) 100년 전에 정식화했다고 보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1. 새로운 재화, 즉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는 재화 또는 새로운 품질의 재화 생산
2. 새로운 생산 방법, 즉 해당 산업부문에서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생산 방법의 도입. 이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새로운 발견에 기초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상업적인 취급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 새로운 판로의 개척, 즉 해당국의 해당 산업부문이 종래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시장의 개척, 이 시장이 그 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 원료 혹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이 경우에도 이 공급원이 기존의 것인가 – 단순히 못 보고 지나친 것인가.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것인가를 불문하고– 혹은 최초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새로운 조직의 실현. 즉 독점적 지위(예를 들면 트러스트)의 형성 혹은 독점의 타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결합방식(혁신)은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이 관행과는 다른 차

4) 슘페터, 194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5) 슘페터, 1934, 『경제 발전의 이론』원래 이 책은 1911년에 나왔지만 위에 이 글에서 주로 인용된 '제 2장 경제 발전의 기본 현상'을 포함하여 상당부분 1926년 2판에서 대폭 수정되었고 이후 4판까지 보완되었다. 이 글의 인용문은 1934년 제 4판의 번역본이다.

원에서, 그리고 기존의 기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업가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단순히 보행횟수를 늘리는 것과 다른 것처럼, 새로운 결합의 수행은 단순히 관행적인 과정의 점진적 반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편 마차를 아무리 연속적으로 배차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결코 철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철도를 건설한 것은 일반적으로 역마차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혁신을 위한 자원은 기존 생산과정에서 ‘탈취’ 해 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로서 신용의 역할과 이를 공급하는 자본가를 지목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결합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그 어떤 기존 결합으로부터 탈취해 와야 한다.” “새로운 결합은 기존 결합과 달리, 현존하는 유동성 수익에 의해서는 조달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폐, 혹은 화폐 대체물로 대출을 받고 이것으로 필요한 생산 수단을 구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분명히 ‘자본가’ 라고 불리는 범주에 속하는 경제 주체들의 기능인 것이다.” (슘페터, 1911)

혁신은 과거의 시스템 밖에서 태어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존 관성과 구세력의 저항이라는 장애로 인해 기존 방식과 병존하여 존재한다고 슘페터는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은 혁신의 단독 출현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기존 기업 중에서 두 세 개의 기업이,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서로 다른 완전함을 가지고 혁신을 붙잡는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선구자’ 가 출현한 생산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른 생산부문에 의해 모방” 되어 확산됨으로써 호황국면이 온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슘페터가 설명하는 혁신의 출현과 전파, 확산의 경로이고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동력인 것이다.

③ 혁신의 담당자 – 혁신적인 기업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본주의 혁신을 일으키는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나 관리자, 소유주와는 다른 경제주체인 혁신적 기업가(entrepreneur)다. “기업가는 결코 평범한 경영진, 회사의 주인, 또는 성공적인 회사의 경영인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기업가란 ‘근대적 형태의 산업 지도자’ 로서 끈질기게 혁신을 좇는 사람이다.” (토머스 매크로, 2007)[6]

구체적으로 혁신적 기업가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슘페터는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혁신적 구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혁신을 실행에 옮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혁신을 “단

6) 토머스 매크로, 2007, 『혁신의 예언자』

순한 꿈과 유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다른 종류의 의지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관성과 제도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회집단의 일원이 기존 것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든 비난의 표적" 이 될 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장애에 직면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을 위한 능력을 잘 압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굳이 혁신적 기업가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혁신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능력과 자질을 말했다고 봐야 한다.(슘페터, 1911)

덧붙이면 혁신적 기업가는 발명가와는 다르다고 슘페터는 말한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하고 사람들에 의해 일상화 된 직업 노동 과정에서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고 종종 폭넓게 알려져" 있는데, 혁신적인 기업가의 역할은 바로 불확실성과 저항을 뚫고 (이미 널려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탁월하게 짚어내고 있다.

④ 기업가의 혁신 동기 –기업가 정신

그런데 기업가는 어떤 동기로 혁신을 추구하는가? 슘페터가 설정하는 기업가는 단지 부자가 되어 사치스런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형적인 기업가라는 것은 자신이 공들이고 있는 노력이 충분한 '잉여향락' 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는 자기 행동의 쾌락적 성과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대신에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슘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첫째 슘페터의 기업가는 "자신만의 왕국, 다시 말해서 한 가업을 건설하고 싶은 꿈과 의지" 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혁신의 동기가 된다고 한다. 둘째,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투쟁 의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 그 자체를 위한 성공 획득 의지가 있다." 세 번째는 창조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행위 자체의 기쁨이다. 단순한 상점주가 하루 노동을 간신히 마친 것에 비해, 우리의 기업가는 항상 여력을 가지고 다른 활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변화와 모험, 그리고 곤란 그 자체를 위해 국민경제에 변화를 주고 국민경제 속으로 과감하게 돌진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특히 일에 대한 기쁨, 새로운 창조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이다." (슘페터, 1911)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꿈, 승리자가 되려는 의지, 창조의 기쁨이라는 혁신적 기업가의 세 가지 혁신 동기 역시 굳이 기업가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슘페터의 기업가는 이윤추구 동기가 없는가? 당연히 아니다. 기업가적 이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강조한다. 단, 여기서 기업가적 이윤이란 기업가가 단행하는 성공적인 혁신에서 비롯된 보상 성격의 수수료다.(토머스 매크로, 2007)

⑤ 슘페터의 혁신, 무엇을 참조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슘페터의 자본주의 혁신이론은 직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제기를 받을 만하다. 우선 기업가에 의한 혁신이 자본가뿐 아니라 다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가?(슘페터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 이외에 대중(노동자)에 의한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불연속적인 창조적 파괴과정에서 발생할 경제불안정과 엄청난 실업의 고통 등은 그저 경제의 역동적 변화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차적 문제인가? 각각을 좀 더 확인해 보자.

㉠ 사회 혁신은 다수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에 의한 산업발전이 다수를 이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자본주의 기업가가 수행하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통한 부단한 혁신을 사회 발전으로서 낙관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자본주의 생산의 전형적 업적은 저렴한 옷감, 저렴한 면직물과 레이온 직물, 저렴한 부츠, 저렴한 자동차 등등이고, … 엘리자베스 여왕은 비단양말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업적은 전형적으로는 여왕을 위해서 더 많은 비단 양말을 마련해주는 데 있지 않고, 공장의 여공들이 끊임없이 줄어드는 노력을 대가로 비단양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 주는데 있다." (슘페터, 1942)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과 격차는 슘페터의 믿음이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어쨌든 이 대목에서 혁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거칠게 표현한다면 사회혁신은, **"사회 구성원을 위한 혁신, 사회 규칙과 제도를 바꾸는 혁신,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힘에 의한 혁신"** 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 소수의 기업가정신을 넘어 다수의 시민혁신 정신을 고려하자.

슘페터 말대로, 소수의 기업가에 의한 혁신이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해당기업의 다수의 노동자는 기업가의 혁신 기획에 따라 그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정도에 그치는가. (물론 슘페터도 대기업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혁신 기업가들 대신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당연히 아닐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슘페터가 말하는 혁신적 기업가는 일종의 '혁신적 자질' 에 관한 것이지 특정 집단에 관한 정의라고 볼 수 없다.(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슘페터 자신도 인정한다.) 또한 굳이 기업가에게 적용되는 자질도 아니다. 어쩌면 기업의 다수 노동자들도 가지고 있는 자질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가 지금 기획하는 사회혁신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 주도형 혁신' 이라는 점에서 주체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기존의 사회혁신 개념에는 이점이 덜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슘페터가 열거한 기업가의 혁신동기와 대비되는, 생활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혁신 동기는 무엇일까? 어떤 동기부여가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혁신에 참여하도록 하게 될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 시민을 불안과 고통에서 탈출시키는 혁신이어야 한다.

슘페터는 불연속적인 창조적 파괴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경제 불안정과 엄청난 실업의 고통 등에 대해서, 사회가 '역동적' 으로 진화해 가는데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했다. 장기 파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슘페터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사회안전망 부재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기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구조조정이 바로 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혁신이 약자들을 우선배려하고 약자들이 우선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기본 사실을 늘 확인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혁신이 아니라 다수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과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슘페터가 생각한 거시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혁신과정과 혁신방법,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등을 확인해보았다. 100년 전에 전개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틀과 키워드는 상당이 영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다. 더불어 그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으로부터 유래되는 중요한 문제점들과 한계로부터도 역설적인 참고를 받을 만하다.

2013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3년 11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 소득	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김수현
저출산	1/28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최정은
연금개혁	2/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이은경
가계 부채	2/28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김병권
보장성 강화	3/27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이은경
경제민주화	5/22	경제 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김병권
청년고용	8/7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의 문제점과 원인	김수현
사회적경제와 복지	10/10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은경
사회적경제	10/17	청년에게 협동조합은 아직 '붐' 이 아니다	김병권
사회혁신	11/11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써 사회혁신	김병권